

AI 신탁의 시대, 함께 걷는 신학의 회복: 드보라 서사(삿 4-5장) 실천신학적으로 읽기*

하경지(서울한영대)

1. 들어가는 말

1) 문제 제기과 선행연구

현대 사회는 인공지능(AI)이 산출하는 최적의 해답을 요구한다. 챗지피티(ChatGPT)로 대표되는 대규모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권위 있는 답을 제공하며 인간의 의사결정을 빠르게 대체해 나간다. 이는 고대의 신탁(Oracle)이 수행하던 기능의 새로운 형태로, 목회 현장에서도 설교 작성, 성경공부 자료 준비, 심방 안내 등에 AI 활용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알고리즘적 통치성(Algorithmic Governmentality)은 단순한 기술적 현상을 넘어 진리와 권위가

* 본 논문은 필자가 비블로스성경인문학연구소에서 2026년 4월 15일에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연구물이다. 발표 후 토론에서 소중한 학술적 피드백을 제공해 주신 연구소 회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어디에서 비롯되는가에 관한 근본적 해석학적 질문을 제기한다.¹

AI와 성서학의 학제적 대화는 국내외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헤르츠펠트(Noreen L. Herzfeld), 가너(Stephen Garner), 맥그라스(James F. McGrath)가 각각 하나님의 형상 신학, 트랜스휴머니즘에 대한 신학적 응답, 챗지피티의 성서학적 활용을 다루었다.² 국내 구약학에서는 신학적 인간론, 성서 연구의 보조 도구, AI 담론과의 상호맥락적 대화라는 세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었다.³ 본 연구는 그 위에서 두 가지 작업을 시도한다. 첫째는 AI 담론의 개념 체계를 해석학적 도구로 활용하여 구체적 성서 본문의 의미 구조를 재해석하는 작업이며, 둘째는 그 분석을 목회와 설교의 실천적 방향으로 연결하는 작업이다.

본 연구는 박경식이 한국 구약학에서 처음 수행한 AI 담론과 구약

-
- 1 '알고리즘적 통치성' 개념은 다음에서 정립되었다. Antoinette Rouvroy and Thomas Berns, "Gouvernementalité algorithmique et perspectives d'émancipation," *Réseaux* 177.1 (2013), 163-196.
 - 2 James F. McGrath, "ChatGPT and Biblical Studies," *Interpretation: A Journal of Bible and Theology* 79.2 (2025), 126-135; Noreen L. Herzfeld, *Technology and Religion: Remaining Human in a Co-Created World* (West Conshohocken: Templeton Press, 2009), 42-45; Stephen Garner, "The Hopeful Cyborg," in *Transhumanism and Transcendence: Christian Hope in an Age of Technological Enhancement*, ed. Ronald Cole-Turner (Washington: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11), 87-100.
 - 3 황병준/박도훈, "제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AI)에 대한 미래교회 대응방안 연구," 「신학과 실천」 68 (2020), 811-837; 오경환, "인공지능(AI) 시대의 신학 교육의 방향성 재고," 「신학과 실천」 81 (2022), 619-643; 김경래, "AI 시대 인간 존엄성의 신학적 근거," 「신학과 사회」 38.3 (2024), 1-33. 국내 구약학 선행연구로는 김창주, "인공지능과 구약 성서: 무슨 상관이 있는가(욥 21:21)," 「구약논단」 86 (2022), 187-214; 소형근, "포스트휴머니즘 시대에 인간과 인공지능 이해하기: '강한 인공지능'의 등장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구약논단」 86 (2022), 247-273; 김경식, "인공지능은 정말로 '인간의 형상'이 되어가고 있는가?,"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30 (2023), 441-483; 민경진, "인공지능 시대, 목회자의 고민," 「부산장신논총」 18 (2019); 최중화, "성경해석을 위한 ChatGPT 활용 방법과 한계 연구: 창세기 22장을 중심으로," 「부산장신논총」 23 (2024), 278-293; 김준, "챗GPT를 활용한 구약성경 연구의 가능성: 욥기 42장 6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95 (2025), 19-50; 박경식, "ChatGPT와 엔돌의 신접한 여인 이야기(삼상 28:3-25)의 상호맥락성(intercontextuality) 읽기를 통한 구약신학적 비평 연구," 「구약논단」 93 (2024), 154-187.

본문의 상호맥락적(intercontextual) 대화를 직접적인 선행연구로 받아들이며, 그 위에서 세 방향으로 확장한다.⁴ 첫째, 분석 대상을 한 인물의 양자 구도에서 드보라·바락·야엘의 삼중 구도로 옮긴다. 둘째, AI 담론 일반에 머물지 않고 그 안의 핵심 개념을 본문 해석의 분석 도구로 분리해 낸다. 셋째, 본문에서 도출한 개념을 한국교회의 목회 원리로 연결하는 실천신학적 적용을 시도한다.

본 연구의 방법론적 정당성은 본문 자체에 있다. 사사기 4-5장은 누가 옳은 결정을 내리는가, 누구의 분류가 맞는가, 누구의 예측이 빗나가는가를 묻는다. 이 질문들은 모두 인식론적인 것으로, AI 시대가 마주한 물음과 정확히 겹친다. 본 연구는 외부 이론을 본문에 강제하지 않는다. 본문이 이미 품고 있던 질문을 오늘의 언어로 다시 묻는다. 야미트(Yairah Amit)가 ‘숨겨진 논쟁(Hidden Polemics)’으로 보여준 것처럼, 성서 본문이 표면 이야기 아래에 자기 시대의 인식론적 논쟁을 품고 있는 만큼, 그 논쟁의 자리에 오늘의 질문이 닿으면 본문은 잠겨 있던 목소리를 다시 내기 시작한다.⁵ 본 연구는 사사기 4-5장이 알고리즘적 환원에 저항하는 공동체적 구원 서사임을 논증한다. 드보라의 관계적 권위, 바락의 인격적 현존 요청, 야엘의 이중 블랙박스 구조가 알고리즘적 사유 양식에 대한 세 층위의 응답을 형성한다.

2) 연구 목적과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사사기 4-5장을 AI 시대의 해석학적 좌표 안에서 다시 읽는 데 있다. 오늘날 알고리즘적 사유 양식은 인격성과 공동체성을 데이터의 언어로 환원하려는 압력을 행사한다. 본 연구는 본문 안

4 박경식, 앞의 글, 154-187.

5 Yairah Amit, *Hidden Polemics in Biblical Narrative*, trans. Jonathan Chipman, BibInt 25 (Leiden: Brill, 2000), 1-20.

에서 이 압력을 진단하고, 그에 저항하는 신학적 자원을 조명한다. 본 연구는 이 진단 위에서 본문의 논리 구조로부터 신학적 개념들을 도출하고, AI 시대 한국교회를 위한 실천신학적 자원을 제시한다. 방법론적으로 본 연구는 상호맥락성(intercontextuality)을 기본 틀로 삼는다. 시스템의 알고리즘적 사유 양식과 드보라·바락·야엘의 응답이 이루는 긴장 관계를 재구성하는 작업이다.

이 분석의 구체적 도구로 AI 비평을 실험적으로 도입한다. 본 연구의 AI 비평은 AI를 분석 도구로 활용하는 방식과 다르고, AI 기술에 대한 윤리적 비평과도 구별된다. 본 연구는 AI 담론이 발전시킨 개념 체계를 해석학적 렌즈로 활용하여 고대 성서 본문의 의미 구조를 새롭게 조명한다. 페미니스트 비평, 생태비평, 탈식민주의 비평이 자기 시대의 담론을 해석자의 도구로 차용해온 전통과 같은 형식적 위치에 본 연구가 놓인다. 다만 이들 비평이 수십 년의 축적을 거쳐 정착한 것에 비추어, 본 연구는 후속 연구에 의해 검증·수정될 단초적 작업이다.

본 연구가 분석 대상으로 삼는 알고리즘적 사유 양식은 막스 베버(Max Weber)의 도구적 합리성(Zweckrationalität)이 21세기에 도달한 정점이다.⁶ 현실의 AI 시스템은 결정론적 예측, 확률적 비결정성, 예상치 못한 출력, 환각 등 다층적 현상을 포함한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AI 시스템 자체가 아니라 사사기 4-5장의 본문이다. AI 담론의 개념 체계는 그 본문 분석의 도구로 차용된다. 본 연구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효율성과 최적화를 절대화하는 사유 양식이다. AI 시스템 전체에 대한 포괄적 비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둔다. 본 연구에서 ‘알고리즘적’이라는 술어는 이 효율 절대화의 사유 양식을 가리키며, 베버적 도구적 합리성

6 막스 베버의 도구적 합리성 개념이 21세기 알고리즘 사회에 어떻게 확장되는지에 대해서는 Shoshana Zuboff, *The Age of Surveillance Capitalism* (New York: PublicAffairs, 2019); Stuart Russell, *Human Compatible* (New York: Viking, 2019) 참조.

의 21세기적 형태를 지시하는 한정된 의미로 사용된다.

본 연구는 사사기 4-5장의 최종 형태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 공시적·정경비평적 읽기를 채택한다. 본 연구가 이 본문을 선택한 까닭은 의사결정(드보라의 신탁), 예측(시스라의 동맹 계산), 반전(야엘의 행동)이 서사 표면에 직접 드러나는 보기 드문 구조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AI 비평적 유비는 이 세 서사 축에서 작동한다. 다만 고대 본문에 현대 담론의 어휘를 가져오는 작업에는 시대착오의 위험이 따르므로, 본 연구는 세 자기-점점 기준을 따른다. 첫째, 본 연구의 유비는 해당 패턴이 본문에 서사적으로 명시된 자리에서만 작동한다. 둘째, 본 연구의 유비는 기존 해석을 전복하지 않고 보강한다. 셋째, 본 연구의 유비는 검증 가능한 본문 단서가 있는 자리에서만 작동한다. 본문의 세 자리에서 이 조건이 충족된다. 드보라의 경우 사사기 4장 6-7절의 신탁 구조, 바락의 경우 사사기 4장 8절의 이중 조건문, 야엘의 경우 사사기 4장 17-21절의 분류 오류 서사가 그것이다.

필자가 제안하는 AI 비평은 완성된 방법론이 아니라 잠정적 시도이다. 본 연구의 AI 비평은 AI가 능동적 해석 주체로 참여하는 해석공동체 모델이 아니다. 인간 해석자가 AI 담론의 개념 체계를 분석 도구로 차용하여 본문을 읽는 작업이다. 본 연구가 도구로 차용하는 세 축은 알고리즘적 사유 양식, 블랙박스, 정렬 실패이다. 이 세 개념이 본문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4장에서 자세히 살핀다. 본 연구는 사사기 4-5장을 신명기적 관점의 연약적 순환 도식(배교-형벌-부르짖음-구원) 안에서 읽는 전통적 접근을 일차 좌표로 삼는다. AI 비평은 그 위에서 이차적 의미 층위를 조명하는 보완적 작업이다.

3) 신학적 토대와 본 논문의 구성

본 연구의 신학적 토대는 야웨가 직접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무너뜨리신다는 본문의 신학적 선언이다(삿 4:14-15). 이 본문은 폰 라트(Gerhard von Rad)가 정립한 ‘야웨의 전쟁’ 전통의 고전적 표현이다.⁷ 신적 주권이 구원의 일차 원인임을 선언한다. AI 비평은 이 신적 주권을 대체하지 않는다. 신적 행위가 인간의 결단·관계·내면성을 통로로 삼는다는 서사적 구조를 조명할 뿐이다. 본 연구는 알고리즘의 실패 지점을 신적 활동의 영역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모든 층위에서 주권적으로 활동하시며, 알고리즘의 실패는 그 활동을 읽어내려는 인간 인식의 한계가 드러나는 지점이다.

사사기 4-5장은 동일 사건을 산문(4장)과 시문(5장)으로 이중 서술한다. 산문은 원인-결과의 선형적(linear) 서사 형식을 취한다. 그러나 그 형식은 세 균열 지점에서 내부로부터 해체된다. 바락의 조건부 순종(4:8), 시스라의 분류 오류(4:17-21), 승리 공로의 분산이 그 균열이다. 5장의 노래는 이 해체를 다성적(polyphonic) 시 형식 자체로 완성한다.

이어지는 본 논문의 2장에서 드보라의 예언적 권위, 3장에서 바락의 인격적 현존, 4장에서 야엘의 이중 블랙박스를 차례로 다룬다. 5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어머니’ 드보라와 시스라의 어머니가 이루는 이중 어머니 구도를 분석한다. 두 어머니의 대비는 관계적 인식과 패턴 알고리즘적 인식이라는 본 연구의 인식론적 핵심을 인격적 형상으로 구현한다.

7 Gerhard von Rad, *Holy War in Ancient Israel*, trans. and ed. Marva J. Dawn (Grand Rapids: Eerdmans, 1991).

2. 드보라: 예언적 권위

본 장은 드보라의 예언적 권위가 AI의 예측 모델과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분석한다. 드보라는 사사로 세워지기 전 이미 예언자였다. 히브리 성서 전통에서 사사 직분은 예언자적 권위 위에 덧입혀지는 기능이다. 사사기 4장 4-7절은 드보라를 세 역할로 동시에 제시한다. 첫째, 여예언자(נְבִיאָה, 느비아)이다. 남성형 ‘나비’(נְבִיא)의 여성형으로, ‘부름 받은 자’라는 함의를 지니며, 외부로부터 신적 말씀을 수신·축적한 자를 가리킨다. 이 수동적 수신·축적의 형식이 아래에서 다룰 AI 유비의 출발점이 된다. 둘째, 사사(שַׁפְּטָה, 쇼프타)이다. 기본형 ‘사파트’(שָׁפַט)는 단순한 재판을 넘어 공동체를 위한 중재·통치의 포괄적 리더십을 함의한다.⁸ 셋째, 랍비돏의 아내(אִשְׁתּוֹ לְרַבִּידֹם, 에세트 라피돏)이다. 여기서 ‘라피돏’은 고유명사(남편의 이름)로 읽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보통명사로 읽을 경우 ‘횃불들’을 뜻하므로 ‘에세트 라피돏’은 ‘횃불의 여인’으로 번역될 수 있다. 이 경우 드보라의 형상은 남편에게 귀속된 여성이 아니라 그 자체로 타오르는 예언자적 불꽃으로 읽힌다. AI가 기능적 효율성의 논리로 작동하는 도구라면, 드보라는 예언과 통치와 전략과 관계를 인격적 책임 안에서 통합하는 존재다.

8 Daniel I. Block, *The Book of Judges: Ruth* (NAC 6; Nashville: Broadman & Holman, 1999), 152. 양인철은 4장의 다층적 제시(여예언자·사사·라피돏의 아내)가 다성적 권위 구조를 형성함을 바흐친(Mikhail Bakhtin)의 대화 이론으로 분석한다. 양인철, “미하일 바흐친(Mikhail Bakhtin)의 대화 이론(Dialogism)에 기반한 사사기 4-5장 분석,” 「구약논단」 87 (2023), 139. 바흐친의 대화주의는 본문 내부의 다성적 목소리들의 관계를 분석하는 도구이고, 본 연구의 AI 비평은 본문 구조가 본문 외부의 동시대 인식론적 압력에 어떻게 저항하는지를 분석하는 도구다. 본 연구는 양인철의 작업을 전제하면서 외부 압력에 대한 비평적 좌표를 추가한다.

1) 예언자 드보라와 AI 유비의 경계

드보라의 예언(삿 4:6-7)은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적의 미래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AI의 예측 모델과 기능적으로 유사하다. 히브리어의 형태(수동분사)가 함축하듯, 예언자(נְבִיא, 나비) 자체가 외부 말씀의 수신자라는 점에서 이 유비는 단순한 비유의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 유비의 유효 범위는 복잡한 상황 변수들을 처리하여 명확한 지침을 산출하는 기능적 역할에 있다. 그러나 유비가 성립하지 않는 지점 역시 명확하다. 드보라의 예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삿 4:6)라는 선언이 드러내듯 야웨의 말씀에 그 기원을 두며, 이는 인격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알고리즘이 결코 이를 수 없는 초월적 원천을 전제한다.⁹

2) 관계적 권위

드보라가 자신을 ‘이스라엘의 어머니’(אם בישראל, 엠 베이스라엘, 삿 5:7)로 칭한 것은 단순한 호칭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¹⁰ 드보라는 ‘지도자’나 ‘사사’가 아닌 ‘어머니’로 자신을 규정함으로써, 권력을 수직적으로 행사하는 군주의 언어 대신 관계적 리더십(relational leadership)의 언어를 선택한다.

9 박경식, 윗글, 154-157; McGrath, “ChatGPT and Biblical Studies,” 130-132; Herzfeld, *Technology and Religion*, 42-45. 세 연구 모두 AI가 제공하는 정보와 인격적 주체로부터 발화되는 신탁 사이의 근본적 비대칭을 각자의 방식으로 논증한다.

10 사사기 5장 7절의 ‘엠 베이스라엘’(אם בישראל)은 단순한 은유적 호칭이 아니다. 프림어-켄스키(Tikva Frymer-Kensky)는 이 표현이 고대 근동에서 공동체의 수호자이자 결속의 원천으로서의 사회적 권위를 지칭하는 공식적 호칭일 가능성을 제시한다. Tikva Frymer-Kensky, *Reading the Women of the Bible* (New York: Schocken, 2002), 46-48. 이윤경은 이 호칭이 가정의 사적 영역을 벗어나 공적 영역에서의 권위를 지시함을 논증한다. 이윤경, “여성 승전가의 여론 형성 기능: 미리암과 드보라의 노래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63 (2017), 176-182.

한 가지 짚어 둘 점은 드보라의 예언과 AI의 예측은 같지 않다는 것이다. AI는 데이터의 패턴에서 미래를 추정하는 데 비해, 예언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둘 사이에는 존재론적 차이가 있다. 본 연구가 양자를 나란히 놓는 까닭은 그 차이를 흐리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차이를 더 또렷이 드러내려는 것이다. AI의 예측 능력이 정교해질수록, 인격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예언의 자리가 어디인지 더 분명해진다. 알고리즘이 모방할 수 없는 영역이 곧 계시의 자리다.

이 분석은 드보라를 AI 비평의 논증 수단으로 환원하지 않는다. 관심은 드보라의 리더십 구조가 AI 시대의 질문과 어떻게 공명하는지에 있다. 드보라의 권위는 정보의 독점에 있지 않다. AI는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만 그 결과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반면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전장 다볼 산으로 친히 동행한다(삿 4:14). 이 동행은 정보 전달을 넘어선 인격적 책임의 현현이다. 엑섬(J. Cheryl Exum)은 드보라의 ‘이스라엘의 어머니’ 자기 규정이 생물학적 모성을 넘어선 사회적·정치적 권위의 표지임을 논증하며,¹¹ 본 연구는 이 통찰을 AI 비평의 관점에서 확장한다. 드보라는 정보 제공자이자 공동체의 운명을 함께 짚어지는 책임적 존재로서, AI가 결코 복제할 수 없는 인격적 리더십의 원형을 구현한다.

사사기 4-5장은 단독 영웅의 신화를 의도적으로 해체한다. 드보라는 사사이면서도 직접 무기를 들지 않고 바락을 세우며, 승리의 공로는 드보라·바락·야엘 세 인물에게 분산된다. 알고리즘이 단일 최적 주체

11 J. Cheryl Exum, “‘Mother in Israel’: A Familiar Figure Reconsidered,” in *Feminist Interpretation of the Bible*, ed. Letty M. Russell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5), 73-85. 야엘 비판에 대해서는 J. Cheryl Exum, *Fragmented Women: Feminist (Sub)versions of Biblical Narratives* (JSOTSup 163; Sheffield: JSOT Press, 1993), 65-89 참조.

를 산출하려는 경향에 맞서, 사사기 서사는 책임과 영광을 의도적으로 분산한다. 이 분산은 AI 시대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공동 리더십의 원형이다. 알고리즘적 사유 양식은 한 명의 가장 효율적인 주체를 찾으려 하지만, 사사기의 서사는 책임을 한자리에 모으지 않고 흩는다. 영광 자체가 분산되었기에 책임도 함께 짊어진다.

이 분산 구조는 한국교회 목회 현실에 직접적 함의를 가진다. 한국교회는 오랜 기간 담임목회자 한 사람에게 영광과 책임을 집중시키는 구조를 유지해 왔다. 담임목회자 한 사람이 설교·심방·행정·재정·대외 활동의 중심에 서고, 그 결과 한 사람의 역량과 도덕성이 교회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양상이 반복되었다. 알고리즘적 사유 양식이 단일 최적 주체를 산출하려는 경향과 이 단일 카리스마 구조는 형식적으로 동형이다. 드보라 서사가 가리키는 분산은 역할의 위계적 분배가 아니라 영광과 책임을 함께 짊어지는 공동 리더십이다. 평신도 지도자, 부교역자, 여성 사역자, 청년 리더 사이에 영광과 책임이 공유될 때 교회는 한 사람의 한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동시에 그 공유를 통해 공동체적 신실함을 형성한다.

3. 바락: 인격적 현존

1) 이중 조건문 분석(삿 4:8)

본 장은 바락의 동행 요청을 데이터적 확실성에 맞서는 인격적 현존의 요구로 읽는다. 바락의 조건부 동행 요청(삿 4:8)은 두려움이나 믿음의 결핍이 아니라, 인격적 현존을 승리의 절대적 전제로 설정하는 신학적 주장이다. 블록(Daniel I. Block)은 바락의 반응을 믿음의 결핍으로,

웹(Barry G. Webb)은 두려움의 표현으로 읽었다.¹² 그러나 사사기 4장 8절의 이중 조건문 구조, 다시 말해 “만일 … 가면 …, 만일 … 가지 아니 하면”(כִּי אִם … אִם, 임… 배임 로…) 구문은 긍정 조건절과 부정 조건절을 병렬 제시하는 양면 조건문 형식으로, 단순한 거절이나 즉흥적인 두려움의 반응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협상적 언어임을 문법 구조 자체가 드러낸다. 이윤경은 이 구조를 드보라를 전쟁의 주체로 초대하는 협력으로 재해석한다.¹³ 배회숙은 바락을 전쟁 경험이 전무한 어린 소년으로 재평가하고 그의 동행 요청을 자신의 형편을 알고 순종하기 위한 또 다른 형태의 신앙으로 해석한다.¹⁴ 필자는 이윤경과 배회숙의 해석 위에서 한 층위를 더한다. 바락의 요청은 데이터(신탁)가 아닌 인격적 현존(드보라의 동행)을 승리의 절대적 전제로 설정하는 신학적 입장이다. 그는 신탁의 확실성 자체를 의심한 것이 아니라, 드보라의 현존 없는 신탁의 실행 자체를 거부한 것이다.

2) 인격적 현존의 신학적 의미

바락의 요청(삿 4:8)은 양면 조건문 구조를 통해 인격적 현존을 승리의 절대적 전제로 못 박는다.¹⁵ 바락에게 필요한 것은 승리의 보증수표(데이터)가 아니라 전장의 공포를 함께 견뎌줄 인격적 현존이었다. 이 자세는 가나가 강조하는 성육신의 신학적 원리와 구조적으로 일치한다. 그 원리란 하나님이 정보나 율법의 전달이 아니라 함께 하심

12 Block, *Judges: Ruth*, 196-198; Webb, *Judges*, 186-189.

13 이윤경, *읽글*, 176-182.

14 배회숙, “남자들은 다 어디에?: 드보라, 바락, 아엘의 삼중주(삿 4-5장),” 『기독교사상』 2023년 7월호, 145-148.

15 이 양면 조건문 구문은 창세기 24:5의 아브라함의 종의 조건부 질문과 민수기 32:29-30에서 모세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제시한 조건문에서도 사용된다. 모두 신중하게 형성된 협상 언어의 자리임을 확인해 준다.

(Immanuel)을 선택하셨다는 것이다.¹⁶

데이터적 확실성이 아니라 인격적 현존을 고집하는 바락의 자세는, AI 시대 목회자에게 요청되는 근본적인 태도를 미리 형상화한다. 이는 오경환이 AI 시대 신학교육의 방향으로 제시한 참여와 소통에 토대를 둔 실천지향적 신학과 일치한다.¹⁷ 바락의 주저는 결과적으로 승리의 공로를 여러 인물에게 돌린다. 드보라는 바락의 조건부 요청에 대해 “네가 가는 이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넘기실 것임이니라”(삿 4:9)고 응답한다. 이 응답은 바락의 요청을 전면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요청이 초래할 결과 곧 영광의 분산을 함께 예고한다.

본문은 바락의 조건부 요청을 일정 부분 서사적으로 유보하면서도, 동시에 그 유보를 통해 구원의 공로가 단독 영웅에게 귀속되지 않고 공동체적으로 분산되는 결과를 산출한다. 바락의 요청이 서사의 한 축에서 ‘영광의 상실’로 평가받는 순간에도, 다른 축에서는 그 상실이 오히려 공동 리더십의 신학적 가능성을 여는 통로가 된다. 승리의 영광은 한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드보라·바락·야엘 세 인물에게 분산된다. 드보라와 바락 사이에는 다불 산으로 함께 내려가는 명시적 연대(삿 4:9-10)가 성립하지만, 야엘은 본문 안에서 드보라·바락과 직접 상호 작용하지 않으며, 공동체의 경계에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진 제3의 축으로 기능한다. 이윤경은 바락의 태도가 드보라와의 관계를 협력으로 이끌었음을 지적하며, 이 협력 구조가 사사기 5장의 찬양 노래에서

16 가너(Stephen Garner)는 성육신(Incarnation)이 하나님께서 단순히 정보나 명령을 전달하는 방식 대신 물리적 현존(bodily presence)을 선택하셨다는 신학적 패러다임을 구성함을 논증한다. Stephen Garner, “The Hopeful Cyborg,” 87-100. 이는 기술이 인간 관계를 대체하려 할 때 제기해야 할 신학적 저항의 언어다.

17 오경환, *읽글*, 632-636.

공동체적 승리로 재현됨을 보여준다.¹⁸ 필자는 이 협력 구조가 알고리즘이 전제하는 단일 최적 경로의 논리에 맞서는 공동체적 연대 서사의 핵심 형상임을 논증한다.

바락의 인격적 현존 요청은 디지털 시대 목회자에게 현재적 함의를 던진다. AI 도구가 설교 작성, 성경 연구, 심방 안내, 행정 처리 등 목회의 다양한 영역에 일상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도구의 효율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 도구가 제공하는 정보의 풍부함이 인격적 만남의 자리를 대체하지는 못한다. 바락이 데이터(신탁)의 확실성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가 인격적 동행 없이 단독으로 작동하는 것을 거부했듯, 오늘의 목회자에게도 정보의 풍부함과 별개로 함께 가는 사람의 현존이 절대적 전제로 요청된다. AI 도구가 풍부해질수록 인격적 만남의 자리는 더 의식적으로 보존되어야 한다.

4. 야엘: 이중 블랙박스

본 장은 야엘 단락에서 본 연구가 차용하는 세 축(알고리즘적 사유 양식, 블랙박스, 정렬 실패)이 본격적으로 작동하는 자리를 다룬다. ‘알고리즘적 사유 양식’은 효율성과 최적화를 절대화하여 단일 최적 출력을 산출하려는 결정론적 인식 양식이며, 시스라의 동맹 계산과 그의 어머니의 패턴 인식에서 작동한다. ‘블랙박스’는 입력과 출력 사이의 인과 경로가 외부 관찰자에게 불투명한 구조이며, 시스라의 인식 실패(외부)와 야엘의 내면(내부)이라는 이중 형식으로 등장한다. ‘정렬 실패’는 알고리즘이 대리 지표(proxy)에 정렬되어 실제 판단 대상에는 정렬되지 못하는

18 이윤경, *읽글*, 182-186.

구조이며, ‘헤벨의 아내’라는 단일 대리 지표가 야엘의 실제 변수를 대체하는 자리에서 작동한다.

1) 서사적 침묵과 초점화

사사기 4-5장의 서술자는 야엘의 내면을 직접 서술하지 않으며, 독자는 그녀의 행동과 대화만으로 그녀를 만난다. 이 서사적 침묵은 해석의 공백인 동시에 초대다. 본 연구는 미케 발(Mieke Bal)이 정립한 초점화(focalization) 이론을 사사기 4장 야엘 단락에 적용한다. 이 관점에서 보면 사사기 4장의 서술은 외부 시각에 머물러 야엘의 내적 동기를 의도적으로 모호한 채로 남긴다.¹⁹ 본 연구는 이 침묵을 ‘내부 블랙박스’로 명명하고, 알고리즘이 접근할 수 없는 인간 내면성의 신학적 영역으로 재기술한다.

두 가지 방법론적 경계가 요청된다. 첫째, 알터(Robert Alter)가 경고한 ‘과잉해석’(overreading)의 위험이다.²⁰ 본 연구는 야엘의 침묵만을 단독적으로 강조하지 않는다. 서술자가 드보라의 예언(4:6-7), 바락의 요청(4:8), 시스라의 피신 판단(4:17)에 대해서는 동기를 명시하면서도 야엘의 내적 동기에 대해서만 반복적으로 침묵한다는 대조적 구도 안에서, 야엘의 침묵은 본문의 서사 논리가 산출한 구조적 공백이다. 둘째,

19 서사 초점화(focalization) 이론은 발(Mieke Bal)에게서 체계화되었다. Mieke Bal, *Narratology: Introduction to the Theory of Narrative*, 2nd ed.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97), 142-161. 발은 사사기 본문 분석에서도 시점과 초점화 문제를 일관되게 다룬다. Mieke Bal, *Death and Dissymmetry: The Politics of Coherence in the Book of Judg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8); Mieke Bal, *Murder and Difference: Gender, Genre, and Scholarship on Siser's Death*, trans. Matthew Gumpert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8). 본 연구는 이 이론을 사사기 4장 야엘 본문의 내면 침묵 분석에 적용한다. 구약 내러티브 분석에 적용한 또 다른 연구로는 벌린(Adele Berlin)을 들 수 있다. Adele Berlin, *Poetics and Interpretation of Biblical Narrative* (Sheffield: Almond Press, 1983), 43-82.

20 Robert Alter, *The Art of Biblical Narrative* (New York: Basic Books, 1981), 11-22.

‘블랙박스’는 본 연구가 AI 담론에서 도입한 은유로, 본 연구는 야엘 단락의 내적 동기 침묵 자리를 이 어휘로 명명한다.

시스라의 피신 결정은 단순한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그의 알고리즘적 분류 체계가 낳은 구조적 오류다. 그는 겐 족속 헤벨과 하솔 왕 야빈 사이의 정치적 동맹(삿 4:17)을 근거로 야엘의 장막을 아군 변수로 분류했다. 그러나 시스라의 알고리즘은 야엘을 위협 변수로 분류할 수 있었던 두 입력값을 누락했거나 가중치를 낮게 책정했다. 본문은 헤벨이 모세의 처남 호밥 자손에서 ‘갈라져 나왔다’(גַּלְלָהּ, 바이파레드)고 명시한다(삿 4:11; 1:16). 이 ‘갈라져 나옴’은 양가적이다. 한편으로 헤벨이 겐 족 집단에서 분리되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거리를 두는 행위였다. 다른 한편으로 그 분리가 이스라엘과의 옛 친족 동맹 기억을 동반함을 드러낸다. 시스라의 알고리즘은 이 친족 유대의 흔적을 동시대 정치 동맹(헤벨-야빈)보다 낮게 책정했다. 여기에 더하여, 야엘이 여성이라는 변수가 시스라의 군사 알고리즘에서 비전투원·낮은 위협으로 자동 분류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알고리즘은 데이터를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데이터에 ‘어떤 가중치를 부여하느냐’에서 실패하며, 시스라는 활용 가능한 정보를 보유하고도 그것을 활성화하지 못한 셈이다.²¹

나아가 이 동맹의 성격을 정밀하게 검토하면 야엘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난다. 이 동맹은 야엘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남편 헤벨의 정치적 결정이었다. 박유미의 내러티브 분석이 지적하듯, 야엘이 시스라를 장막으로 맞아들이고 그를 살해하기까지의 일련의 행동은 우발적이라

21 겐 족속 헤벨과 하솔 왕 야빈의 정치적 관계는 사사기 4:17에 명시된다.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평화가 있음이라.” 이 동맹은 헤벨이 겐 족 집단에서 분리되어(4:11) 이스라엘과 거리를 둔 결과로 보인다. Block, *Judges: Ruth*, 200-201. 김준은 겐 족속 헤벨이 자기 종족에서 분리하여 게데스 지역으로 이주한 배경에 주목하면서 야엘의 장막이 이스라엘과 가나안 양쪽에 대해 경계적(liminal) 공간임을 논증한다. 김준, “야엘의 시스라 암살(삿 4-5): 경계인으로서 약자의 생존 방법,” 『대학과 선교』 41 (2019), 25-26.

기보다 전쟁의 정황을 숙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계획적 판단에 가깝다.²² 야엘은 그 동맹의 수혜자이면서도 동시에 그 동맹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경우 즉시 적대적 위치에 놓이는 이중적 취약성에서 있었다. 야엘은 이스라엘도, 가나안도, 동맹군도 아닌 이 경계 지점에 있었던 것이다.

2) 이중 블랙박스 구조

야엘에 대한 해석은 양면적이다. 한편에서 야엘은 환대 관습을 악용한 인물로 비판받아 왔다. 엑섬은 야엘 살해 장면이 국가적 승리의 틀 안에서 너무 쉽게 정당화됨을 비판했다. 다른 한편에서 김준은 야엘을 전쟁의 한복판에서 생존을 모색한 경계인으로 본다. 본 연구는 후자의 입장에 선다. 야엘의 행동을 윤리적 모범으로 두지 않는다. 예측할 수 없는 자리에서 일어난 변수가 구원 역사의 통로가 되었다는 역설로 읽는다.²³ 야엘의 장막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었다. 고대 근동의 환대는 정해진 규범이 작동하는 사회적 틀이었다. 손님은 보호받고, 주인은 그 보호의 약속을 지킨다. 그러나 그 약속은 깨졌다. 환대의 문법 안에서 환대가 무너지는 순간, 시스라의 모든 계산은 무력해졌다.

야엘이 시스라를 장막으로 맞이하는 행위(삿 4:18)는 두 층위의 해석을 부른다. 김준은 환대 규범(Hospitality Code)의 관점에서 시스라가 남성 가장 헤벨의 장막이 아닌 야엘의 장막으로 향한 것, 야엘이 제공하지도 않은 물을 먼저 부탁한 것, 거짓 증언을 강요한 것(삿 4:20) 등 환대 규례를 반복적으로 위반함을 논증한다. 환대법은 손님의 보호 요청

22 박유미, “야엘은 악녀인가 영웅인가?: 사사기 4-5장 연구,” *Canon & Culture* 2/2 (2008), 165-167.

23 Victor H. Matthews, “Hospitality and Hostility in Judges 4,” *Biblical Theology Bulletin* 21 (1991), 13-15; Exum, 윗글, 73-85; 김준, 윗글, 7-35.

과 주인의 보호 제공, 그리고 손님이 주인의 영역과 명령권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쌍방 계약이다.²⁴ 환대법은 시스라의 행위에 의해 먼저 깨졌으며, 야엘의 결단은 그 깨어진 계약 안에서 일어난다.²⁵ 시스라의 명령은 야엘을 단순한 피신처 제공자가 아니라 도주 공범으로 강제 편입시키는 행위다. 은닉은 적을 돕는 행위이고, 거부는 쫓기는 적장의 즉각적 위협을 감수하는 일이다. 야엘은 이 이중 구속(double bind)에 갇혀 있었다.²⁶

환대법 위반은 사사기 전체의 서사 맥락에서 다시 평가될 필요가 있다. 박유미는 이에 대해 사사기 서사 전체가 속임수와 매복과 계락을 통한 적장 제거를 구원의 통로로 제시하는 전쟁 서사의 관습을 공유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에훤이 단검으로 에글론 왕을 처치한 장면(삿 3:15-23), 기드온의 밤 기습(삿 7:16-22), 데베스의 한 여인이 멧돌 위쪽으로 아비멜렉을 살해한 장면(삿 9:53-54)이 모두 이러한 서사 관습을 공유한다. 야엘의 행위 역시 이 문법 안에서 여호와의 전쟁에서의 적장 제거라는 별도 범주에 속한다.²⁷ 박유미는 또한 본문이 야엘의 성적 의도를 지지할 정황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음을 핵심 어휘 분석으로 입증한다. ‘수라’(הָרַס, 돌이키다)는 구약 다른 자리에서 단순 방향 전환이나 머뭇거리기하는 일반 동사이며, ‘카사’(כָּסָה, 덮다)는 보호·은신의 일반 의미로 사용된다. 본문은 두 어휘를 그 일반적 의미 범위 안에서 사용한다. 필자는 두 해석 위에서 한 층위를 더한다. 시스라의 환대 위반이 야엘을 공범 구조에 가두는 바로 그 순간이 동시에 야엘의 내부 블랙박스

24 매튜스, 윗글, 13-15.

25 김준, 윗글, 15-17.

26 ‘이중 구속(double bind)’은 다음에서 정립된 개념이다. Gregory Bateson, *Steps to an Ecology of Min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2), 201-227.

27 박유미, 윗글, 168-172.

(자율적 결단의 자리)를 여는 통로가 된다.

여기에 지리적 역설이 더해진다. 시스라의 근거지 하로셋 학교임은 기손 강 하류 서쪽에 위치하고, 바락의 집결지 게데스는 갈릴리 북방 납달리 지파 영토에 있다(삿 4:6, 10). 전투는 두 지점의 중간 지점인 기손 강 유역 이스라엘 평야에서 벌어졌다. 패주하는 시스라가 향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경로는 자신의 본거지 하로셋 방향이었다. 그러나 이미 바락이 그 경로를 추격하고 있었다. 그 결과 시스라는 역설적으로 적의 근거지 방향인 북쪽 게데스 권역으로 도주할 수밖에 없었다(삿 4:15-17). 바로 그 경로 위에 야엘의 장막이 있었다(삿 4:11). 시스라에게 지리적 경로는 선택이 아니라 강제된 조건이었고, 그 강제된 자리에서 작동한 분류 알고리즘이 야빈 동맹을 근거로 헤벨의 장막을 아군 좌표로 분류하면서 그를 죽음으로 이끌었다. 시스라가 도주한 지리적 자리가 곧 그의 분류 알고리즘이 실패한 자리였다. 이 실패는 정보의 부재가 아니라 보유한 정보에 잘못된 가중치를 부여한 데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정렬 실패의 구조와 공명한다.

야엘의 장막은 이중 블랙박스 구조를 가진다. 외부 블랙박스는 시스라의 인식론적 실패다. 시스라는 입력값(자신의 몸)을 위탁했지만 출력값(말뚝에 의한 죽음)은 그의 모든 예측을 배반한다. 내부 블랙박스는 야엘의 내면 자체로, 어떤 데이터 시스템도 접근할 수 없는 인간 주체성의 환원 불가능한 영역이다. 이중 블랙박스는 역설적으로 구원의 통로가 된다. 하나님의 행위는 알고리즘이 예측·통제할 수 없는 그 불투명한 공간, 야엘의 내면성을 통해 작동한다. ‘헤벨의 아내’라는 단일 대리 지표가 본래 판단 대상을 대체하는 순간, 시스라의 분류 체계는 야엘의 실제 내면 변수를 보지 못한 채 치명적 오작동을 일으킨다.

3) 공포 속의 용기와 윤리적 복잡성

사사기 4장 산문이야엘의 내면을 침묵으로 남겨 알고리즘적 형식을 내부에서 균열시켰다면, 5장의 드보라의 노래는 그 균열을 시적 형식 자체로 완성한다. 노래는 야엘을 전사적 영웅의 언어로 찬양한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삿 5:24).²⁸ 드보라의 노래는 야엘의 행위가 내포하는 도덕적 복잡성을 외면하지 않는다. 환대법 위반과 동맹 파기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오히려 그 복잡성을 직시하면서도 공포 속 결단의 용기를 인정하고 축복한다. 드보라의 노래는 야엘에게 ‘이상적 여성’이 아니라 ‘결단하는 생존자’의 영광을 안긴다. 이 찬양은 합리적 선택 이론으로 환원될 수 없는 인간 결단의 신학적 깊이를 증언한다.²⁹

본 연구는 야엘의 환대법 위반과 동맹 파기를 무조건적으로 합리화하지 않는다. 액션은 야엘의 살인 행위가 비판적 성찰 없이 ‘복되다’는 축복의 언어(삿 5:24)로 찬양됨으로써, 국가적·군사적 승리의 틀 안에서 그녀의 폭력이 정당화되는 이데올로기적 편향이 작동한다고 비판한다.³⁰ 그러나 야엘의 행위를 사사기 전체의 전쟁 서사 안에서 평가할 때, 앞서 박유미가 입증한 사사기의 서사 관습을 감안한다면, 야엘의 행위는 폭력이 특별히 미화된 예외적 장면이 아니라 전쟁 중 적장 제거

28 Susan Niditch, *Judges: A Commentary* (OT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08), 74-76. 나이디치(Susan Niditch)는 사사기 5:24-27의 야엘 찬양이 구전 전사 서사시(warrior epic)의 관습적 언어를 사용하여 야엘을 군사적 영웅과 동등한 위치에 놓는 것임을 분석한다. ‘여인 중에 가장 복된 자’라는 표현은 창세기 14:19의 아브람 축복이나 누가복음 1:42의 마리아 축복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

29 장석정은 야엘의 도덕적 복잡성이 드보라 이야기의 의도적 모호성의 핵심임을 논증한다. 장석정, “드보라 이야기의 모호성 이해: 공동체적 구원 서사자들을 중심으로,” 『신학사상』 199 (2022), 20-25.

30 Exum, “Mother in Israel,” 73-85; *Fragmented Women*, 65-89.

의 전략적 행위라는 범주에 속한다. 이 관점은 역설의 비판을 무효화하지 않되, 야엘의 살해를 사사기 전쟁 서사의 관습 안에서 다시 읽게 한다. 필자는 내부 블랙박스 논증으로 한 층위를 더한다. 역설의 이데올로기 비판이 성립하려면 야엘이 국가적 승리를 위해 동원된 도구적 존재여야 한다. 그러나 서술자가 야엘의 내면을 단 한 마디도 서술하지 않는 본문의 침묵은 역설적으로 야엘을 이데올로기적 도구화로부터 보호한다. 그 결단이 외부 목적에 의해 규정될 수 없는 자율적 공간에서 발생했음을 본문 자체가 보증하는 것이다.

야엘과 같이 윤리적 결단의 무게를 짊어진 인물을 통해 구원이 임한다는 역설, 그 복잡성을 직시하면서도 공포 속의 결단을 축복하는 드 보라의 노래(삿 5:24)가 사사기 구원 서사의 신학적 핵심이다. 사사기는 하나님이 단순하지 않은 인물들을 통해 구원을 이루심을 기드온·입다·삼손에서도 반복적으로 보여준다. 사사기의 구원 서사는 ‘경계인의 신학’(theology of the marginalized)을 구현한다. 경계인은 단순한 외부자(outsider)와 다르다. 겐 족은 이스라엘과 언약적 혈연적 유대를 지닌 민족이었으며(창 15:19; 출 18장; 삿 1:16), 사사기 4장 11절이 명시하듯 겐 족속 헤벨이 자기 종족에서 ‘분리되어’ 야빈과 동맹한 결과 야엘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주변부에 놓였다. 구원의 결정적 행위자는 단순한 외부자가 아니라, 언약 공동체와의 혈연적 유대를 보유하면서도 가족사의 정치적 배치로 주변부에 밀려난 겐 족 여성 야엘에게서 온다. 알고리즘이 노이즈로 분류하는 변수들이 실제로는 핵심 신호임을 선포하는 역설이다. 나이드치(Susan Niditch)는 이 역설적 위치가 사사기 경계인의 신학을 구현함을 강조하며, 본 연구는 이를 알고리즘적 편향 비판과 연결한다.³¹ 황병준과 박도훈이 첨단 기술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을 위해 목

31 Niditch, *Judges: A Commentary*, 66-76.

회적 돌봄을 촉구한 것처럼,³² 오늘 교회는 알고리즘이 노이즈로 분류하는 경계인들의 자리에 야엘의 장막처럼 서야 한다.

야엘의 경계 지점은 한국 사회의 약자 사역에 모델이 된다. 야엘이 그러했듯, 한국 사회의 경계인 역시 공동체와의 유대를 상실한 자가 아니라 그 유대를 보유한 채 사회 구조의 강제로 주변부에 놓인 인물들이다. 알고리즘이 가중치 책정에서 실패하는 이 자리는 알고리즘에는 노이즈로 보이지만, 신학적으로는 구원의 핵심 신호가 발생하는 자리이다. 교회의 사역은 이 신호를 식별하는 작업에서 시작된다.

5. 두 어머니의 대비

드보라 노래(삿 5장)의 마지막 장면은 시스라의 어머니의 시야를 통해 두 어머니의 인식을 직접 대비한다. 시스라의 어머니와 시녀들이 나열하는 전리품 목록에는 ‘한두 처녀’(חַמַּתִּים אִמָּה, 라함 라하마타임)이 포함되어 있다. 직역하면 ‘한두 자궁(들)’을 뜻하는 이 완곡어법은 전쟁에서 강탈된 여성들을 가리킨다.³³ 시스라의 군대가 승리했다라면 야엘 자신이 그 목록에 오를 수 있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 드보라와 전리품을 기다리는 시스라의 어머니 사이의 대비는 단순한 인식론적 차이가 아니다. 두 어머니의 자리에는 여성의 몸과 생존이 걸려 있다.

한편에는 자신을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규정한 드보라(삿 5:7)가 있다. 드보라의 권위는 정보의 독점이 아니라 공동체의 위험을 함께 감

32 황병준/박도훈, *읽글*, 825-832.

33 이 표현의 성적이고 폭력적인 함의에 관한 상세한 분석은 Susan Ackerman, *Warrior, Dancer, Seductress, Queen: Women in Judges and Biblical Israel* (New York: Doubleday, 1998), 90-97 참조.

당하는 책임적 현존에서 비롯된다. 다른 한편에는 시스라의 어머니(삿 5:28-30)가 있다. 애커만(Susan Ackerman)은 시스라의 어머니를 단순한 비극적 어머니로 보는 통념을 경계하며, 전리품 목록을 기대하며 나열하는 모습에서 가나안 제국주의의 수혜자이자 공모자의 형상을 읽어낸다.³⁴ 이 해석에 따르면 시스라 어머니의 기다림은 순수한 모성이 아니라 정복의 논리 위에서 있다.

본 연구는 이 통찰을 AI 비평의 관점에서 한 층위 확장한다. 이 어머니 역시 아들을 걱정하는 인격이며, 창문 너머로 귀환을 기다리는 모성은 드보라의 모습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과거의 승전 경험이 형성한 알고리즘에 기대어 현재를 해석한다. ‘아들은 이미 이긴 적이 있고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패턴 인식이 그 알고리즘의 핵심이다. 이는 AI 담론이 말하는 환각(hallucination)의 구조와 일치한다. 환각은 데이터에 기반한 듯 보이지만 실재와 어긋난 자신 있는 출력이다. 시스라의 어머니는 과거 승전이라는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데이터가 만든 알고리즘이 새 실재(아들의 죽음)를 보지 못하게 한다. 시녀들의 동조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는 과거의 성공 패턴이 알고리즘화되어 새로운 현실 인식을 가로막는 디지털 인식 환경의 원형이다.

드보라는 공동체와 함께 위험 속으로 내려가는 관계적 권위의 형상이고, 시스라의 어머니는 아들을 향한 진실한 모성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승전 경험이 형성한 알고리즘적 패턴에 갇혀 실재를 보지 못하는 형상이다. 알고리즘은 드보라의 현존도, 야엘의 내면성도, 시스라의 어머니의 슬픔도 처리할 수 없다. 사사기 4장이 내용 차원에서 제기한 세균열, 다시 말해 바락의 인격적 연대, 야엘의 불투명한 내면성, 시스라

34 Ackerman, 윗글, 90-97.

의 분류 오류는 5장의 다성적·감정적 형식 안에서 구조적으로 완성된다. 두 장의 관계는 반복이 아니라 심화이며, 이 심화 구조는 오늘의 독자에게 알고리즘적 사유 양식의 환원적 압력을 비평적으로 성찰하게 하는 사사기의 신학적 자원이다.

6. 나가는 말

본 연구는 사사기 4-5장의 드보라 서사를 AI 시대의 목회적 실천을 위한 해석학적 좌표로 읽었다. 드보라의 관계적 권위, 바락의 인격적 현존 요청, 야엘의 이중 블랙박스는 AI 시대 목회의 세 실천 원리, 다시 말해 공동체적 리더십, 성육신적 동행, 경계인에 대한 돌봄을 제시한다.

AI 시대에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효율이 아니라 함께 걷는 신학이다. 드보라가 다볼 산으로 내려갈 때 그 발걸음은 신탁을 대신한 것이 아니라 신탁을 완성한 것이었다. 비유하자면 교회는 AI라는 변압기를 활용하되, 인격적 만남이 흐르는 전선 자체는 아날로그적 영성의 공간에 놓여야 한다. 바락이 데이터의 확실성보다 드보라의 인격적 현존을 고집한 것처럼, 오늘의 목회자에게 요청되는 것은 알고리즘이 제공하지 못하는 거룩한 비효율성의 회복이다.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걷는 성육신적 돌봄이 그 비효율성의 구체적 형태다.

거룩한 비효율성에는 두 경계 조건이 따른다. 첫 번째 조건은 책임성(accountability)이다. 거룩한 비효율성은 드보라가 다볼 산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는 결과까지 끌어안고 함께 내려간 것처럼, 비효율의 결과에 대한 인격적 책임을 동반한다. 두 번째 조건은 공공성(publicness)이다. 바락과 드보라의 동행이 공동체의 승리로 귀결되었듯, 거룩한 비효

음성은 공동체가 증언할 수 있는 공공 행위로 실천된다.³⁵

끝으로, 본 연구는 21세기 AI 시대의 질문을 사사기 4-5장 본문 앞에 가져옴으로써, 한국교회가 마주한 새로운 과제를 드보라 서사의 관계적 리더십과 연결해보려 한다. 이 통찰은 구체적 목회 현장으로 이어진다. 첫째, 관계적 권위는 설교의 자리에서 나타난다. 한국교회의 설교 문화는 오랫동안 일방적 선포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AI가 설교 작성을 보조하는 시대에 이 일방성은 더 깊은 문제가 된다. 알고리즘이 산출하는 가장 효율적인 메시지가 강단을 차지하면 설교는 인격적 만남이 아닌 정보 전달의 자리로 환원된다. 드보라가 다볼 산에서 회중과 함께 결단한 자리처럼, 설교 강단도 회중과 함께 묻는 자리로 회복되어야 한다. 목상 나눔 설교, 소그룹 토론 설교, 회중의 응답을 본격적으로 끌어들이는 형태가 그 구체적 길이다.

둘째, 인격적 현존은 비대면 시대에도 멈추지 않는다.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는 온라인 예배의 일상화를 경험했다. 영상 예배·온라인 소그룹·메신저 심방은 효율성과 접근성을 확장했지만, 동시에 화면 너머의 만남이 갖는 본질적 한계도 드러냈다. 비언어적 신호의 손실, 정서적 거리의 누적, 식탁 교제의 부재가 그것이다. 바락이 드보라의 인격적 동행을 절대적으로 요청한 것처럼, 디지털 매개를 활용하되 인격적 만남의 자리는 더 의식적으로 보존되어야 한다. 작은 모임의 회복, 심방의 회복, 식탁 교제의 회복이 그 구체적 형태다.

셋째, 경계인의 신학은 교회 밖으로 향한다. 한국 사회의 경계인은 다양한 자리에 흩어져 있다. 이주노동자, 다문화 가정의 자녀, 청년 1인 가구, 정신질환 경험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탈북민이 그 자리에 선다. 이들은 알고리즘이 노이즈로 분류하는 자리이자, 동시에 야엘처럼 공

35 김경래, 윗글, 18-25.

동체와의 유대를 보유한 채 구조적 자리로 인해 주변부에 놓인 인물들이다. 야엘의 장막처럼 서는 교회의 형태는 다문화 예배, 청년 쉼터, 무료 진료, 정신건강 사역, 지역 카페 사역 등으로 구체화된다. 이 사역은 공동체 안의 가려진 유대를 다시 식별하고 활성화하는 작업이다. AI가 목회의 도구로 들어오는 시대다. 이 세 원리는 효율을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사람을 잃지 않게 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래, "AI 시대 인간 존엄성의 신학적 근거," 『신학과 사회』 38.3 (2024), 1-33.
- 김경식, "인공지능은 정말로 '인간의 형상'이 되어가고 있는가?,"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30 (2023), 441-483.
- 김준, "야엘의 시스라 암살(삿 4-5): 경계인으로서 약자의 생존 방법," 『대학과 선교』 41 (2019), 7-35.
- _____, "챗GPT를 활용한 구약성경 연구의 가능성: 욥기 42장 6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95 (2025), 19-50.
- 김창주, "인공지능과 구약성서: 무슨 상관이 있는가(욥 21:21)," 『구약논단』 86 (2022), 187-214.
- 민경진, "인공지능 시대, 목회자의 고민," 『부산장신논총』 18 (2019).
- 박경식, "ChatGPT와 엔들의 신접한 여인 이야기(삼상 28:3-25)의 상호맥락성(intercontextuality) 읽기를 통한 구약신학적 비평 연구," 『구약논단』 93 (2024), 154-187.
- 박유미, "야엘은 악녀인가 영웅인가?: 사사기 4-5장 연구," 『Canon & Culture』 2/2 (2008), 163-182.
- 배희숙, "남자들은 다 어디에?: 드보라, 바락, 야엘의 삼중주(삿 4-5장)," 『기독교사상』 2023년 7월호, 140-153.
- 소형근, "포스트휴머니즘 시대에 인간과 인공지능 이해하기: '강한 인공지능'의 등장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구약논단』 86 (2022), 247-273.
- 양인철, "미하일 바흐친(Mikhail Bakhtin)의 대화 이론(Dialogism)에 기반한 사사기 4-5장 분석," 『구약논단』 87 (2023), 127-151.
- 오경환, "인공지능(A.I.) 시대의 신학 교육의 방향성 재고," 『신학과 실천』 81

- (2022), 619-643.
- 이윤경, “여성 승전가의 여론 형성 기능: 미리암과 드보라의 노래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63 (2017), 165-189.
- 장석정, “‘드보라 이야기’의 모호성 이해: 공동체적 구원 서사자들을 중심으로,” 「신학사상」 199 (2022), 9-36.
- 최중화, “성경해석을 위한 ChatGPT 활용 방법과 한계 연구: 창세기 22장을 중심으로,” 「부산장신논총」 23 (2024), 278-293.
- 황병준/박도훈, “제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AI)에 대한 미래교회 대응방안 연구,” 「신학과 실천」 68 (2020), 811-837.
- Ackerman, Susan. *Warrior, Dancer, Seductress, Queen: Women in Judges and Biblical Israel*. New York: Doubleday, 1998.
- Amit, Yairah. *Hidden Polemics in Biblical Narrative*. Translated by Jonathan Chipman. BibInt 25. Leiden: Brill, 2000.
- Bal, Mieke. *Death and Dissymmetry: The Politics of Coherence in the Book of Judg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8.
- _____. *Narratology: Introduction to the Theory of Narrative*. 2nd ed.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97.
- Berlin, Adele. *Poetics and Interpretation of Biblical Narrative*. Sheffield: Almond Press, 1983.
- Block, Daniel I. *The Book of Judges: Ruth*. NAC 6. Nashville: Broadman & Holman, 1999.
- Exum, J. Cheryl. “‘Mother in Israel’: A Familiar Figure Reconsidered.” In *Feminist Interpretation of the Bible*, edited by Letty M. Russell, 73-85.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5.
- _____. *Fragmented Women: Feminist (Sub)versions of Biblical Narratives*. JSOTSup 163. Sheffield: JSOT Press, 1993.
- Frymer-Kensky, Tikva. *Reading the Women of the Bible*. New York: Schocken, 2002.
- Garner, Stephen. “The Hopeful Cyborg.” In *Transhumanism and Transcendence: Christian Hope in an Age of Technological Enhancement*, edited by Ronald Cole-Turner, 87-100. Washington: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11.
- Herzfeld, Noreen L. *Technology and Religion: Remaining Human in a Co-Created World*. West Conshohocken: Templeton Press, 2009.
- Matthews, Victor H. “Hospitality and Hostility in Judges 4.” *Biblical Theology Bulletin* 21 (1991), 13-15.

- McGrath, James F. "ChatGPT and Biblical Studies." *Interpretation: A Journal of Bible and Theology* 79.2 (2025), 126-135.
- Niditch, Susan. *Judges: A Commentary*. OT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8.
- Russell, Stuart. *Human Compatible*. New York: Viking, 2019.
- Webb, Barry G. *The Book of Judges*. NICOT. Grand Rapids: Eerdmans, 2012.
- Zuboff, Shoshana. *The Age of Surveillance Capitalism*. New York: PublicAffairs, 2019.
- Alter, Robert. *The Art of Biblical Narrative*. New York: Basic Books, 1981.
- Bateson, Gregory. *Steps to an Ecology of Min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2.
- von Rad, Gerhard. *Holy War in Ancient Israel*. Translated and edited by Marva J. Dawn. Grand Rapids: Eerdmans, 1991.
- Anthropic, Claude Opus 4.7 (2025.4.), [대형언어모델(LLM)], <https://www.anthropic.com>. 내용 검토 및 표현 개선, 영문 초록 보완 작업에 활용하였으며, 모든 내용은 저자가 직접 검토하고 수정하였음.

검색어

AI 비평, 상호맥락성, 알고리즘적 사유 양식, 이중 블랙박스, 거룩한 비효율성, 경계인의 신학, 공동체적 연대

[ABSTRACT]

Walking Together in the Age of AI Oracles: A Practical-Theological Reading of the Deborah Narrative (Judg. 4-5)

Kyung-Ji Ha

Seoul Hanyoung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Deborah narrative (Judg. 4-5) as a practical-theological resource for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with the aim of diagnosing the reductive pressure that algorithmic rationality exerts upon personhood, relationality, and human interiority in contemporary pastoral and ecclesiastical contexts.

The study adopts intercontextuality as its governing methodological framework, placing the ancient biblical text in dialogical tension with contemporary AI discourse. It provisionally introduces AI Criticism as a hermeneutical instrument, distinct from AI-assisted textual analysis and from technology ethics, by deploying three conceptual categories developed within AI discourse, namely algorithmic rationality, black box, and alignment failure, as interpretive lenses through which to illumine the meaning structure of Judges 4-5. The analysis proceeds from a synchronic, canonical-critical reading, treating the prose account (ch. 4) and the poetic Song (ch. 5) as a unified literary and theological whole.

The study applies this framework to three figures. Deborah's prophetic authority (Judg. 4:6-7) is distinguished from algorithmic prediction by its origin in the personal God of Israel, and her self-designation as 'mother

www.kci.go.kr

in Israel' (Judg. 5:7) embodies a relational authority grounded in shared communal responsibility rather than in informational monopoly. Barak's conditional request (Judg. 4:8), examined through its double-conditional syntactic structure, is read not as a failure of faith but as a theological claim that grounds victory in personal presence rather than in data certainty. Jael's tent is interpreted as a dual black box: an external black box marking the epistemological failure of Sisera's classification algorithm, and an internal black box marking Jael's interiority as irreducible to any data system. The contrast between Deborah and Sisera's mother further illumines the opposition between covenantal relational authority and pattern-dependent algorithmic cognition.

The study proposes three conceptual frames, dual black box, holy inefficiency, and theology of the marginalized, as practical-theological categories for the AI era, and derives three corresponding pastoral principles: communal leadership, incarnational accompaniment, and care for those at the margins. What the Korean church, long oriented toward efficiency, must recover in the AI era is a theology of walking together.

key words

AI Criticism, Intercontextuality, Algorithmic Rationality, Dual Black Box, Holy Inefficiency, Theology of the Marginalized, Communal Solidarity

투고일: 2026년 04월 30일

심사일: 2026년 05월 20일

게재 확정일: 2026년 05월 20일

www.kci.go.kr